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성과관리고객만족팀 이귀현 팀장(2110-5417), 강진영 사무관(5249)

지경부, 다산·연암·방촌·장위상 신설, 우수부서 시상키로

- 무역 2조불 달성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

□ 지식경제부는 무역 1조불 행정체제 구축과 2조불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집단적 타성제거와 업무성과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매월 '이달의 우수 부서'를 시상키로 함

○ 특히, 동 제도는 집행·지원 업무까지 포괄하여 시상 분야를 다양화 함으로써 그 간 정책 부서에만 관심이 집중되던 관행을 없애고, 전 부서의 업무 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

□ 시상 분야는 정책, 창의, 집행, 활동 4가지이며, 우리나라의 역사적 위인의 아호를 따서 분야별 명칭을 확정

○ (다산상) 파급효과가 크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을 발표한 부서에 대해서는 개혁적 토지제도인 정전제, 화폐경제 확립 등을 제안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호를 따서 다산상을 수여

○ (연암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정책을 발표하거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한 경우, 각종 수차나 베틀 및 물레방아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하고, 토지 소유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전론을 제안한 조선시대 혁신가 박지원의 정신을 기려 연암상을 수여

○ (방촌상) 예법을 개정하고, 근무실적이 태만한 수령을 처벌하는 등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던 방촌 황희 정승의 아호를 딴 방촌상은 갈등·이해대립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집행업무를 잘 마무리한 부서에 수여

○ (장위상) 각종 행사나 국제 협력, 홍보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서는 고려시대에 거란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6주를 회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장위 서희의 아호를 딴 장위상을 수여

□ 지식경제부는 동 시상 제도를 이달부터 즉각 시행키로 하는 한편, 매월 말 직원조회에서 장관이 직접 우수 부서 과장에게 시상하고, 연간 수상 실적을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예정

□ 이와 함께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각 실별로 1명씩 추천받아 이들 중 1명을 '올해의 지식경제인'으로 선정할 계획

○ '올해의 지식경제인'은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한 직원뿐만 아니라, 부담이 많은 업무를 맡아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거나 他과 업무 지원 등 눈에 띄지 않는 성과를 묵묵히 수행한 직원들을 선정

참고 : 위인별 주요 업적

○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년~1836년**)**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실학자·저술가·시인·철학자·과학자·공학자 호는 사암(俟菴)·탁옹(籜翁)·태수(苔叟)·자하도인(紫霞道人)·다산(茶山)이다.
중농주의 실학자로 조선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수원 화성 건축 당시 거중기를 고안하여 건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홍역 치료서 《마과회통》을 집필하였다.
경상도 장기, 전라도 강진 등지에서의 18년간의 유배 기간 동안 저술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개혁적 토지제도인 정전제(井田制)를 주장하고, 사민구직(四民九職)의 직업분화와 직업의 전문화를 강조하여 사회분업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조세개혁, 화폐유통촉진 등을 통한 상업과 교역의 발전을 주창하였다. 또한, 도량형 통일, 화물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정비도 제안하였다.

○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년 ~ 1805년**)**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사상가, 소설가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미중(美仲) 또는 중미(仲美), 호는 연암(燕巖),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상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상주의를 주장하였다. 북경을 거쳐 열하, 서울로 돌아오는 5개월간의 여행 후, 몇 년의 작업 끝에 그동안 오랑캐로만 치부하였던 청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상을 소개하며 북학론을 개진한 역작 [열하일기]를 발표하였다. 안의현감으로 재직하면서는 각종의 수차나 베틀, 물레방아 등을 제작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자신이 [열하일기]에 기록한 실용적인 문명을 실천하였다.
또한, 금천의 연암골에서 생활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농서 [과농소초]에서 중국 농법의 도입 및 재래 농사 기술의 개량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한전론(限田論)을 제안해, 심각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당시 양반계급의 타락을 풍자한 허생전, 양반전 등의 작품을 남겼다.

○ 방촌 황희(黃喜, 1363년~1452년**)**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재상(宰相) 초명은 수로(壽老), 자(字)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厖村)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1423년 5월 예조판서를 거쳐 7월 기근이 장기화된 강원도관찰사로 나가 백성 구휼을 잘 하고 선정을 펴서 민심을 얻었다.
의정부영의정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을 추진, 국방강화 정책을 펼쳐 야인과 왜 방어책을 세워 김종서와 최윤덕 등을 적극 중용케 하였고, 그들을 통해 4군6진을 개척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소나무의 남벌 금지령을 제정하고 지역 수령들의 근무실적을 조사하게 하여 태만한 수령을 처벌하게 하는 제도 제정하였다. 농사개량에 유의하여 우수한 품종의 곡식을 거두어서 대량 생산한 뒤 곡식종자를 보급, 각 도에 뽕나무를 많이 심도록 권장하여 식량과 의복 재료를 쉽게 구하게 했다.

○ 장위 서희(徐熙, 942년 ~ 998년**)**

고려 초의 문신, 군인, 외교관 자는 염윤(廉允) 시호는 장위(章威)
993년(고려 성종 12년), 요 성종은 장수 소손녕과 80만 대군을 보내 고려를 공격하였고, 고려 조정에서는 서희를 보내어 소손녕과 담판케 하였다.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의 옛땅은 요나라의 소유라는 소손녕의 주장을 서희는 탁월한 화술로 반박하여, 고려는 고구려의 옛땅이 터전이므로 국명도 고려임을 설득하였다. 담판 결과 소손녕은 고려와 국교 수립에 만족하고 물러났다. 994년(성종 13년) 평장사(平章事)로서 왕명을 받고 출정하여 청천강 이북의 여진족을 축출하고, 압록강 동쪽 280여 리, 곧 흥화진(의주), 용주(용천), 통주(선천), 철주(철산), 귀주(귀성), 곽주(곽산)을 포함하는 강동육주를 얻게 되었다.